

# 간호대학생의 직업기초능력이 학과적응, 진로정체감과 진로탐색능력에 미치는 영향\*

윤영미<sup>1)</sup> · 성경숙<sup>2)</sup> · 김은주<sup>3)</sup>

## 서 론

### 연구의 필요성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5년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20대의 실업률은 10.7%로 전체 실업률 4.0%보다 2배 이상 높으며(Statistics Korea, 2015) 특히 전문직 중 하나인 간호대학생들의 취업도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가, 의료 서비스의 질적 요구 증가, 의료시장 개방 압력 등 급변하는 사회·구조적 문제들로 인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변화하는 고용형태와 사회적 환경 속에서 대학졸업생에게는 전문지식 뿐만 아니라 도구나 정보를 이용하고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관리능력 및 직업의식 등의 직업기초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는 직업기초능력 및 성취기준을 개발하여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기초능력 수준과 이를 성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견들이 증가하고 있으며(Korea Collegiate Essential Skills Assessment [KCESA], 2015) 각 분야에서 요구하는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연구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며(Kang & Lee, 2003). 특히 간호계열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Park 등(2010)은 직업기초능력이 대부분의 직종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역량이라는 하지만 직종에 따라 좀 더 강조되는

하위영역이 있으며 간호·사회복지학과 학생들에게는 자원활용능력, 연계의식, 자기주도학습능력, 자기관리 및 개발능력과 사회참여의식이 필요한 능력이라고 하였으며(Park, et al., 2010) Kang과 Lee (2003)는 전문대학에 개설된 교양교과목을 분석하면서 직업기초능력의 분야별 차이를 확인하였는데 간호보건계열에서는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 자원활용능력을 위한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었다(Kang & Lee, 2003).

오늘날 간호사들이 처하는 의료 환경은 즉각 문제를 해결하고 결정하기 위한 의사결정 능력, 비판적 사고, 전문가적 기술이 요구되는 복잡한 형태로 변화하면서 간호에 대한 새로운 역할정립을 필요로 하고 있다(DeBourgh, 2003).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간호교육에서는 종래의 교육방법인 강의 위주의 주입식 교육이 아닌 문제중심학습, 시뮬레이션 교육 및 팀 학습 등 통합적 사고와 문제해결능력 및 의사결정능력 등을 함양할 수 있는 교수학습전략을 도입하는 시도가 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들은 주로 ‘특정 직종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직무수행능력에 해당되는 노력들이며 이에 비해 ‘직종이나 직위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직종에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공통적으로 필요한 능력’인 직업기초능력(Jyung, Na, Kim, Jung, & Heo, 2002; Kang & Lee, 2003)에 대한 연구들은 부족한 실정이다. 간호학과에서는 전공교과목 중심의 교육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필요한 직업기초능력을 키우기 위한 시도들은 소홀할 수 있다. 직업기초능력은 대학 졸업 후 학생들이 사회를 경험하

**주요어 :** 직업기초능력, 학과적응, 진로정체감, 진로탐색능력, 간호대학생

\* 본 연구는 2013년 서일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해 연구됨.

- 1) 서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2) 강릉원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3) 상지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교신저자 E-mail: kimeju0409@sangji.ac.kr)

투고일: 2015년 6월 3일 수정일: 2015년 6월 15일 게재확정일: 2015년 6월 21일

면서 겪게 되는 예상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을 제공하기 때문에 간호대학생들에게 역시 이러한 역량 강화를 위한 시도들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대부분의 간호대학생은 직업적 결정을 한 상태로 간호학과에 입학하게 되고 다른 전공에 비해 취업률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진로에 대한 고민이 적은 편이다(Kim, et al., 2004). 이러한 특징은 간호대학생을 위한 교육과정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데 타과에 비해 전공이론교과목과 임상실습교과목의 비중이 커서 자기 탐색은 물론 철학적 성찰의 기회가 결여될 수 있다. 자기탐색 없이 간호사라는 진로의 길에 들어선 간호대학생들은 졸업 후까지 충분한 진로정체감 확립이나 진로탐색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바로 간호사로 활동하게 된다. 간호전문인으로서 뚜렷한 진로정체감을 형성하지 못한 채 졸업 후 간호업무를 하게 된다면 낮은 직업만족도와 높은 이직의도를 갖기 쉬운데(Cho & Lee, 2006) 실제로 2009년 35개 종합병원의 간호사의 이직률은 15.8%로 타보건복지종사자의 이직률 2.2%보다 무려 7배나 높은 것은 준비되지 않은 진로선택을 반증하는 결과이기도 하다(Moon & Lee, 2010).

간호대학생들의 성공적인 간호전문직 정착을 위해 대학생활동 동안 필요한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성공적인 대학생활동의 주요 지표 중 하나인 원만한 학과적응을 통해 학생들은 학과공부를 도전적으로 지각하고 대인관계와 학과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게 되며 안정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며 구체화할 수 있게 된다(Lim, 2011). 이렇게 대학생들에게 있어서 학과 적응은 대학생활동을 보다 의미 있고 행복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졸업 이후의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들의 직업기초능력을 확인하여 우수한 영역과 부족한 영역을 구분하고 또한 학과적응, 진로정체감 및 진로탐색능력간의 관계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간호대학생의 직무수행능력이 아닌 직업기초능력 수준을 분석함으로써 간호교육에서 보완하고 강화해야 하는 영역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더불어 학과적응, 진로정체감과 진로탐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간호대학생이 진로과정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직업기초능력, 학과적응, 진로정체감 및 진로탐색능력을 파악하고 이들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학년별 직업기초능력, 학과적응, 진로정체감 및 진로탐색능력 정도를 파악한다.
- 직업기초능력, 학과적응, 진로정체감 및 진로탐색능력 간 상

관관계를 파악한다.

- 직업기초능력이 학과적응, 진로정체감 및 진로탐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 연구 방법

###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직업기초능력, 학과적응, 진로정체감 및 진로탐색능력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변수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대상자는 2014년 10월부터 12월까지 아직 간호교육기관이 3, 4년제 공존하고 있으므로 서울시내 일 3년제 간호과 재학 중인 전 학년 학생과 지방 4년제 간호학과 재학 중인 전 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년을 고려하여 편의표집하였다. 먼저 윤리적인 면을 고려하여 대상자에게 연구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응답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언제라고 철회될 수 있고 제공해 준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됨을 알려 주었다. 본 연구 대상자수 선정은 G\*power 3.1.5(Cohen, 1988)를 활용하였으며 effect size 0.25, 유의수준 0.05, 검정력 0.95 집단수 4(학년)로 설정하였을 때 최소한의 표본수는 280명이었다. 본 연구의 표본 수는 1-4학년 학년별로 100명씩 조사대상자 수를 400명으로 계획하였으나 회수되지 않은 자료와 부적절한 자료가 제외되어 360명이 연구대상자로 최종 선정되었다.

### 연구 도구

#### ● 직업기초능력

직업기초능력이란 직종이나 직위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직종에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공통적으로 필요한 능력(Kang & Lee, 2003)을 의미한다.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측정도구는 Lee 와 Kim (2010)의 직업기초능력 검사지를 사용하였으며,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정보활용능력, 도구활용능력, 수리능력, 국제문화이해능력, 조직체제이해능력, 리더십, 팀워크능력, 갈등관리능력, 경력개발능력, 책임감 및 자신감 등 총 12개 영역으로 수정, 재배치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영역은 7점 만점으로 자가 인식한 점수를 기록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업기초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원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80$ 점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82$ 점이었다.

● 학과적응

학과적응이란 자신이 선택한 학과와 관련된 학업수행에 만족하며 향후 진로와 관련하여 현재의 학과에 대해 갈등이 없는 상태로, 학업적 성공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에서의 만족, 학과와 관련된 진로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Herr & Niles, 1997). 본 연구에서는 Park (2001)의 설문지를 내용상 중복되는 7문항을 제외하여 총 30문항을 7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학과적응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Park (2001)의 연구에서는 도구의 신뢰도가 Cronbach's  $\alpha=0.93$ 점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93$ 점이었다.

● 진로정체감

진로정체감이란 개인이 갖고 있는 자신의 목표, 흥미, 능력에 대한 명확하고 안정된 상을 통해 알맞은 결정을 내리는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말한다(Holland, 1985). 진로정체감을 측정하기 위해 Holland, Daiger와 Power (1980)가 개발한 MVS (My Vocational Situation)의 정체감 척도를 Kim (1997)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8문항으로 진로계획에 대하여 얼마나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원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89$ 점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94$ 점이었다.

● 진로탐색능력

진로탐색능력이란 직업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으며, 직업에 대한 각각의 특성과 업무적인 특징을 이해하고 직업정보수집

방법을 알고 있는 능력을 말한다. Cha (2005)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용한 도구로 5문항이며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탐색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Cha (2005)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72$ 점이었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67$ 점이었다.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의 분포를 확인하기 위하여 빈도 및 기술통계분석을 이용하였으며 학년별 직업기초능력, 학과적응, 진로정체감과 진로탐색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정으로 Scheffè test을 실시하였다. 또한 각 변수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확인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직업기초능력이 학과적응, 진로정체감 및 진로탐색능력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성별은 여성이 309명(85.8%), 남성이 51명(14.2%)이었다. 연령은 20세에서 35세까지 분포되어 있었으며 평균연령은 22.2세이었다. 학년은 1학년 95명(26.4%), 2학년 96명(26.7%), 3학년 112명(31.1%), 4학년 57명(15.8%)이었다. 지각



<Figure 1> The Core Competencies of Nursing students

된 경제 상태는 상 18명(5.0), 중 278명(77.2%), 하로 인식하고 있는 대상자가 64명(17.8%)이었다.

**간호대학생의 학년별 직업기초능력, 학과적응, 진로정체감, 탐색능력 정도**

간호대학생의 직업기초능력 정도를 파악한 결과(Figure 1), 리더십의 총 7점 만점에 평균 5.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두 번째는 팀워크능력이 5.4점이었으며 문제해결능력은 총 평균

4.4점으로 가장 낮았다.

학년별 차이가 검증된 변수는 조직체계(F=4.59, p=.004), 리더십(F=3.69, p=.012), 팀워크(F=2.77, p=.042), 갈등관리능력(F=4.55, p=.004), 경력개발(F=2.64, p=.049)이었다. 조직체계와 갈등관리는 사후검정결과에서 1학년과 3학년에 비해 2학년과 4학년의 평균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간호대학생의 학과적응, 진로정체감, 탐색능력정도는 학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able 1>.

<Table 1> The Core Competencies, Adaptation of Major, Career Identity and Career Search Ability of Nursing students according to grade. (N=360)

Variables	Degree	Mean	SD	F	p	
Coer Competencies	Problem-Solving Ability	1st	4.4	.8	2.00	.113
		2nd	4.5	.7		
		3rd	4.4	.8		
		4th	4.6	.6		
		Total	4.4	.7		
	Communication Ability	1st	5.1	.8	.71	.549
		2nd	5.3	.9		
		3rd	5.3	.9		
		4th	5.3	.7		
		Total	5.2	.8		
Information Application Ability	1st	5.0	1.1	2.18	.090	
	2nd	5.3	1.0			
	3rd	5.0	1.0			
	4th	5.3	1.0			
	Total	5.2	1.1			
Instrument Application Ability	1st	4.7	1.1	1.92	.126	
	2nd	5.1	.9			
	3rd	4.8	1.1			
	4th	5.0	1.1			
	Total	4.9	1.0			
Numeracy Ability	1st	4.7	1.0	2.25	.082	
	2nd	5.0	.9			
	3rd	4.9	1.1			
	4th	4.9	1.0			
	Total	4.9	1.0			
International Cultural	1st	4.6	1.2	1.09	.352	
	2nd	4.6	1.2			
	3rd	4.7	1.0			
	4th	4.8	1.1			
	Total	4.7	1.1			
Organizational Structure	1st	4.9 <sup>a</sup>	1.2	4.59	.004	
	2nd	5.3 <sup>b</sup>	.9			
	3rd	4.9 <sup>a</sup>	1.1			
	4th	5.3 <sup>b</sup>	.9			
	Total	5.1	1.1			
Leadership	1st	5.3	.9	3.69	.012	
	2nd	5.6	.8			
	3rd	5.4	1.0			
	4th	5.7	.9			
	Total	5.5	.9			

<Table 1> The Core Competencies, Adaptation of Major, Career Identity and Career Search Ability of Nursing students according to grade (Continued) (N=360)

Coer Competencies	Team Work	1st	5.2	1.0	2.77	.042
		2nd	5.5	.9		
		3rd	5.3	1.1		
		4th	5.7	.9		
		Total	5.4	1.0		
	Conflict Management	1st	5.1	.9	4.55	.004
		2nd	5.3 <sup>b</sup>	.7		
		3rd	4.9 <sup>a</sup>	1.1		
		4th	5.3 <sup>b</sup>	.7		
		Total	5.1	.9		
	Career Development	1st	5.1	.9	2.64	.049
		2nd	5.4	.8		
		3rd	5.1	.9		
		4th	5.4	.8		
		Total	5.2	.9		
Responsibility	1st	5.2	1.1	.98	.404	
	2nd	5.3	1.0			
	3rd	5.1	1.1			
	4th	5.3	1.1			
	Total	5.2	1.1			
Adaptation of Major	1st	150.2	25.3	1.50	.213	
	2nd	145.8	21.0			
	3rd	143.9	22.9			
	4th	149.0	23.8			
	Total	146.9	23.3			
Career Identity	1st	59.7	12.4	2.32	.076	
	2nd	58.6	12.6			
	3rd	57.5	12.0			
	4th	62.6	11.5			
	Total	59.2	12.3			
Career Search Ability	1st	19.0	2.5	.98	.404	
	2nd	19.1	2.6			
	3rd	18.7	2.5			
	4th	19.4	2.7			
	Total	19.0	2.6			

\* Significant different by result of Scheffè test

### 각 변수 간 상관관계

간호대학생의 학년별 직업기초능력, 학과적응, 진로정체감, 탐색능력 간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진로정체감과 문제해결, 수리능력과 국제문화 능력과의 관계를 제외한 모든 변수 간 상관관계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과적응에 상관계수가 높은 직업기초능력변수는 도구활용능력( $r=.32, p<.001$ ), 리더십( $r=.32, p<.001$ ), 조직체계( $r=.30, p<.001$ ), 팀워크( $r=.35, p<.001$ ), 책임감( $r=.37, p<.001$ )과 경력개발( $r=.33, p<.001$ )이었다. 진로정체감에 상관계수가 높은 변수는 경력개발( $r=.27, p<.001$ ), 책임감( $r=.26, p<.001$ ), 팀워크( $r=.26, p<.001$ ), 리더십( $r=.25, p<.001$ ) 변수였다. 또한 진로탐색능력에 상관계수가 높은 변수는 책임감( $r=.24, p<.001$ ), 경력

개발( $r=.24, p<.001$ ), 갈등관리( $r=.23, p<.001$ ), 팀워크( $r=.25, p<.001$ )와 의사소통능력( $r=.23, p<.001$ )이었다<Table 2>.

### 간호대학생의 직업기초능력이 학과적응, 진로정체감과 진로탐색능력에 미치는 영향

간호대학생의 학과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직업기초능력 영역을 확인한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했으며( $F=10.5, p<.001$ ) 영향요인으로는 도구활용능력, 리더십, 조직체계, 팀워크, 책임감, 경력개발이 관련이 있는 변수로 검증되었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25%이었다(Overall  $R^2=0.25, p<.001$ ).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직업기초능력 영역의 회귀모형은 유의했으며( $F=4.9, p<.001$ ), 영향요인은 경력개발, 책임감, 팀워크, 리더십이었으며 설명력

<Table 2> The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Variables		PSA <sup>1</sup>	CA <sup>2</sup>	IFAA <sup>3</sup>	ISAA <sup>4</sup>	NA <sup>5</sup>	IC <sup>6</sup>	OS <sup>7</sup>	L <sup>8</sup>	TW <sup>9</sup>	CM <sup>10</sup>	CD <sup>11</sup>	R <sup>12</sup>	AM <sup>13</sup>	CI <sup>14</sup>	
CA <sup>2</sup>	r	.23*	1													
	p	.000														
IFAA <sup>3</sup>	r	.29*	.31*	1												
	p	.000	.000													
ISAA <sup>4</sup>	r	.23*	.30*	.44*	1											
	p	.000	.000	.000												
NA <sup>5</sup>	r	.18*	.35*	.32*	.29*	1										
	p	.001	.000	.000	.000											
IC <sup>6</sup>	r	.23*	.19*	.20*	.21*	.20*	1									
	p	.000	.000	.000	.000	.000										
OS <sup>7</sup>	r	.19*	.26*	.21*	.34*	.24*	.24*	1								
	p	.000	.000	.000	.000	.000	.000									
L <sup>8</sup>	r	.31*	.39*	.30*	.32*	.27*	.19*	.36*	1							
	p	.000	.000	.000	.000	.000	.000	.000								
TW <sup>9</sup>	r	.31*	.34*	.30*	.34*	.26*	.28*	.44*	.45*	1						
	p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CM <sup>10</sup>	r	.29*	.25*	.19*	.19*	.22*	.15*	.25*	.34*	.34*	1					
	p	.000	.000	.000	.000	.000	.006	.000	.000	.000						
CD <sup>11</sup>	r	.19*	.28*	.31*	.23*	.23*	.19*	.23*	.30*	.38*	.33*	1				
	p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R <sup>12</sup>	r	.33*	.25*	.31*	.30*	.20*	.20*	.35*	.40*	.45*	.31*	.35*	1			
	p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AM <sup>13</sup>	r	.13*	.24*	.28*	.32*	.13*	.13*	.30*	.32*	.35*	.27*	.33*	.37*	1		
	p	.011	.000	.000	.000	.013	.011	.000	.000	.000	.000	.000	.000			
CI <sup>14</sup>	r	.10	.17*	.18*	.23*	.10	.08	.21*	.25*	.26*	.19*	.27*	.26*	.65*	1	
	p	.059	.001	.000	.000	.067	.129	.000	.000	.000	.000	.000	.000	.000		
CSA <sup>15</sup>	r	.13*	.23*	.13*	.13*	.15*	.18*	.20*	.17*	.25*	.23*	.24*	.24*	.48*	.29*	1
	p	.012	.000	.015	.011	.004	.001	.000	.002	.000	.000	.000	.000	.000	.000	

<sup>1</sup>PSA-Problem - Solving Ability <sup>2</sup>CA-Communication Ability <sup>3</sup>IFAA-Infaoormation Application Ability <sup>4</sup>ISAA-Instrument Application Ability <sup>5</sup>NA-Numeracy Ability <sup>6</sup>IC-International Cultural <sup>7</sup>OS-Organizational Structure <sup>8</sup>L-Leadership <sup>9</sup>TW-Team Work <sup>10</sup>CM-Conflict Management <sup>11</sup>CD-Career Development <sup>12</sup>R-Responsibility <sup>13</sup>AM-Adaptation of Major <sup>14</sup>CI-Career Identity <sup>15</sup>CSA-Career Search Ability

은 13%이었다(Overall R<sup>2</sup>=0.13, p<.001). 또한 진로탐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직업기초능력 영역에 대한 회귀모형은 유의했으며 (F=4.5, p<.001), 영향요인은 책임감, 경력개발, 갈등관리, 팀워크와 의사소통능력이며 설명력은 12%이었다(Overall R<sup>2</sup>=0.12, p<.001).

## 논 의

간호대학생의 직업기초능력 중 평균이 상대적으로 높은 영역은 리더십, 팀워크, 경력개발능력, 의사소통, 정보활용, 갈등관리능력과 조직체계에해능력이었다. 또한 낮은 영역은 문제해결능력, 수리능력, 도구활용능력과 국제문화이해능력이었다. 리더십은 뚜렷한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주도해 나가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며 다른 사람에게 역할 모델로서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Kim, 2009), 간호대학생은

자신감과 신뢰를 가지고 스스로 격려하는 수준의 리더십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자각하고 있었다. 간호대학생의 리더십은 학업수준과 학과만족도에 긍정적 관계가 있으며(Lee, Park, & Kim, 2014) 특히 셀프리더십이 높은 학생들은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았다(Yang & Moon, 2011). 리더십은 간호실무 수행을 위한 팀 구축에 필수적인 요인이며 급변하는 간호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 필요한 역량(Bae & Park, 2015)이다. Jung과 Jang (2008)의 직업기초능력연구에서는 리더십, 의사소통능력과 팀워크 등을 포함하여 대인관계능력이라고 하였는데 의사소통능력은 간호현장에서 다양한 대상자의 요구를 파악하여 간호문제 확인, 신체적, 정서적 간호를 제공하고 보건의료인들과의 협력과 교류에 필요한 역량이며 간호대학생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Bae & Park, 2015)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의사소통능력과 팀워크 능력은 리더십과 함께 높은 평균을 보였다. 팀워크는 의사소통, 리더십, 분석적 및

<Table 3> Effect of Core Competencies on Academic adaptation, Career Identity and Career Search Ability

Variables	R	R <sup>2</sup>	$\beta$	F	p
<b>Adaptation of Major</b>					
ISAA <sup>1</sup>	.32	.10	2.84	39.78	<.001
L <sup>2</sup>	.39	.16	2.26	32.85	<.001
OS <sup>3</sup>	.42	.18	1.85	25.53	<.001
TW <sup>4</sup>	.45	.20	2.04	22.03	<.001
R <sup>5</sup>	.48	.23	3.73	20.91	<.001
CD <sup>6</sup>	.50	.25	4.21	19.50	<.001
<b>Career Identity</b>					
L <sup>2</sup>	.25	.06	3.24	22.95	<.001
TW <sup>4</sup>	.30	.09	2.30	17.24	<.001
R <sup>5</sup>	.33	.11	1.76	14.00	<.001
CD <sup>6</sup>	.36	.13	2.26	12.93	<.001
<b>Career Search Ability</b>					
R <sup>5</sup>	.23	.06	.68	20.82	<.001
CD <sup>6</sup>	.30	.09	.49	17.18	<.001
CM <sup>7</sup>	.32	.10	.31	13.28	<.001
TW <sup>4</sup>	.33	.11	.32	11.02	<.001
CA <sup>8</sup>	.35	.12	.37	9.95	<.001

1ISAA-Instrument Application Ability 2L-Leadership 3OS-Organizational Structure 4TW-Team Work 5R-Responsibility  
6CD-Career Development 7CM-Conflict Management 8CA-Communication Ability

비판적 사고 등과 함께 대학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추어야 할 일반적 능력이며(Candy, 2000), 이러한 일반적 능력을 개발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대학교육과정의 중요한 역할이다(Bath, Smith, Stein, & Swann, 2004). 본 연구에서의 팀워크는 과제를 수행하거나 학습할 때 다른 사람과 팀을 이루어서 협조적으로 일을 하여 성과를 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데(Kim, 2009) 간호대학생들은 조별 과제 시 조원들이 무엇을 희망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으며 피드백을 교환하고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자신들을 평가하고 있었다. 최근 간호대학의 교육과정은 학습성과기반 교육과정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문제중심교육방법, 블렌디드교육방법 등의 다양한 교수법의 도입으로 팀별 수업방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대상자의 학교들은 모두 2014년 학습성과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전공교과목에서 다양한 교수법을 활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들의 팀워크능력이 향상되었다고 고려된다. 한편 평균이 가장 낮은 영역은 문제해결능력이었다. 문제해결이란 일상생활 속에서 장애나 어려움을 감지하여 그 문제에 관한 다양한 해결책을 선택하는 인지과정(Lee, Kim, & Lew, 2013)으로 지적이고 창의적인 능력이다. 본 연구결과에서 간호대학생들은 문제해결을 위한 과정을 확인하는 정도의 능력은 있으나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신감이나 능동성은 부족하다고 스스로 평가하였다. 문제해결능력은 효과적인 의사결정(Terzioglu, 2006)과 간호문제의 임상적 추론과 판단(Charrier, 2001)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으로 전문직 간호사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 최근 간호교육기관에서는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비판적 사고력, 논리학과 철학 교과목을 개발 또는 개설하고 있는데 실제로 논리학을 이수한 학생이 이수하지 않은 학생에 비해 문제해결능력이 높았다(Yang, 2010).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고려해볼 때, 간호교육평가원의 기준에 따른 인문사회교과목의 확대, 사고력을 필요로 하는 교과목(논리학, 문제해결론, 철학 등)의 운영 및 단순 암기식의 필기시험에서 사례형 문항개발을 통한 출제유형 변화 등의 노력들로 간호대학생들의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평균이 낮은 능력 중 수리능력은 직업기초능력 중 정보, 기술, 도구의 활용능력과 함께 인지적 능력으로 정량적 사고와 자료해석능력으로 도표와 통계자료를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러한 능력은 임상에서 발생하는 많은 투약 관련 오류 중에는 용량계산과 관련된 경우의 빈도가 높다고 보고되면서(Aspden, Wolcott, Bootman, & Cronewett, 2007) 몇몇 연구자들은 간호사에게 약물용량계산이 가장 필요한 능력이라고 하였다(Wright, 2007). 이러한 약물용량계산 역시 정량적 사고 및 자료해석능력이 있어야 가능한 문제일 것이다. 이러한 인지적 능력 함양을 위해서 필요한 교과목이나 교육과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국제문화이해능력도 평균이 낮은 편이었는데, 장단기 어학 연수에 관심이 많아 외국어를 공부하고 있고 국제적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변화하는 국제적 동향에 자신을 맞추거나 적응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대

학교교육의 세계화 등을 통해 대학생들의 국제교류가 증가하고 있지만 간호대학생들의 국제문화이해능력은 부족한 편이었으며 이러한 능력을 평가한 연구도 부족한 상태이다. 최근 의료 관광사업의 확대, 다문화 가족의 증가 및 외국인 진료 증가 등으로 의료기반이 국내 뿐 아니라 해외까지 진출하고 있는 현상을 고려한다면 간호대학생의 국제적 감각을 향상시키고 문화적 이해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학년별 차이가 유의했던 영역은 조직체계이해능력, 리더십, 팀워크, 갈등관리와 경력개발이었으며 모두 4학년 때 높은 평균을 보였다. 간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은 저학년에 교과과목과 전공기초 교과목이 편성되어 있으며 고학년에 전공필수와 선택교과목, 임상실습이 편성되어 있다. 조직체계이해능력, 리더십, 팀워크, 갈등관리와 경력개발능력은 비인지적 요소의 대인관계 및 협력과 자기개발능력에 포함된다(Kim, 2009). 즉 비인지적 요소는 인지적 요소에 비해 교육을 통해 습득되기 용이한 요소이므로 반복과 심화 학습을 통해 향상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Bae와 Park (2015)의 연구에서 교과외 코칭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과 리더십을 향상시켰으며 그 능력이 8주간 지속적으로 향상되었다는 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간호대학생의 직업기초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교과목 뿐 아니라 상담 및 지도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과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직업기초능력은 처음에는 직업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교육의 지표로 활용되었으나 최근에는 고등교육단계의 학습성과 측정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Kim, 2009). 이러한 표준화된 검사결과는 학생들에게 자신들의 학습성과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며 대학기관 및 교수자에게는 학습의 성과를 분석하여 효과적인 교수법과 교과과정 개발의 투입을 제공하며 취업기관에게는 대학졸업자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타 학과에 비해 학습량이 많고, 학생 수가 많은 간호학과 학생들의 전공지식능력 외 대학교육의 학습성과를 통합적으로 측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간호대학생은 졸업 후 간호사가 되겠다는 직업적 결정을 한 상태로 간호학과에 입학하게 되고 다른 전공에 비해 취업률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진로에 대한 고민이 적은 편이며 이미 선택한 진로에 대한 성찰과 평가가 부족한 상태에서 선택하기 쉽다(Kim, et al., 2004). 간호학과 비교과 과정에서 역시 병원이나 산업체 및 기관의 설명회를 열거나 해당기관의 간호사 채용정보를 전달해주는 정도의 취업지도가 대부분이다(Cho & Lee, 2006). 이러한 불확실한 간호대학생들의 진로선택은 취업 후 직무만족이나 조직몰입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평생 자신의 직업에 헌신하고자 하는 경력몰입 또한 저하시키게 된다. 그러므로 교수는 학생이 이미 간호학과로 진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올바른 자신의 진로정체감을 모색하고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진로탐색능력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본 연구결과에서 진로정체감은 5점 만점에 3.3점을 보였다. 이에 비해 진로탐색능력은 5점 만점에 3.8점을 보였다. 두 변수 모두 학년별 차이는 없었다. 진로는 직업을 선택하는 협의의 의미도 있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찰하고 인생의 방향을 설계하는 광의의 의미도 있다.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과 진로탐색능력은 직업기초능력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즉 졸업 후 직업을 갖기 위해 필요한 기초능력의 준비가 잘 된 간호대학생일수록 진로정체감과 진로탐색능력이 높았다. 분명한 진로정체감을 가진 사람은 안정적인 인생목표, 흥미, 기술 그리고 직업을 가지며 자신의 성격과 일치하는 직업과 직업환경을 찾아 일하고자 노력한다(Spokane & Holland, 1995). 또한 대학생들의 진로탐색과정은 주로 자신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삶을 돌아보는 자기탐색부터 시작하며 대학 내의 전문상담가나 교수들과 진로와 심리적 문제를 상담하는 경우들이 일반적이지만 간호대학생의 경우 이런 탐색행동은 부족하다. Bang 등(2009)의 연구결과에서 간호대학생은 졸업 직후에는 임상간호사로 근무하기를 희망하였지만 그 후에는 지역사회간호사, 공무원,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경우도 다수였다. 증가하는 간호대 졸업생 수를 고려한다면 지금까지의 경직된 졸업 후 취업분야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졸업 후 사회진출을 위해 필요한 직업기초능력 뿐 아니라 자기탐색과 더불어 진로 및 취업에 대한 탐색과정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간호대학생의 직업기초능력은 학과적응, 진로정체감과 진로탐색능력에 각 25%, 13%, 12% 설명력을 보였다. 특히 책임감, 팀워크와 경력개발능력은 영향력이 높았는데 직업기초능력 함양을 통해 간호대학생들은 보다 잘 적응할 것이며 분명한 진로탐색능력과 진로정체감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직업기초능력을 확인하고 학과적응, 진로정체감과 진로탐색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연구의 표집방법과 일부 변수와의 관계를 확인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간호대학생의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계속 연구의 기초를 제공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직업기초능력에 관한 지속적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직업기초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양교과목 확대와 전공교과목의 교수법 개발 및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직업기초능력정도가 학과적응, 진로정체감, 진로탐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간호대학생의 직업기초능력 중 리더십, 팀워크, 의



사소통 능력은 다른 영역에 비해 높은 편이었으며 문제해결 능력, 수리능력, 국제문화이해능력은 낮은 편이었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직업기초능력은 학과적응, 진로정체감과 진로탐색 능력에 영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간호대학생들의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연구들이 부족하지만 직업기초능력은 대학졸업 후 직업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적 역량이므로 직무수행능력과 균형 있는 발달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일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연구이므로 전체 간호대학생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복 연구를 제안한다. 또한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양 및 전공 교과목 개발, 교수법 개발 및 출제유형 변화 등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와 평가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교과외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교과목에서 다룰 수 없는 영역에 대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 References

- Aspden, P., Wolcott, J. A., Bootman, J. L., & Cronenwett, L. R. (2007). *Preventing medication errors*.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 Bae, S. H., & Park, J. S. (2015).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extracurricular coaching programs for improving communication skills and leadership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1(2), 202-214.
- Bang, K. S., Jun, M. H., Kim, H. S., Son, H. M., Kang, J. H., Yu, S. J., Kwon, M. K., & Kim, J. S. (2009). Nursing students' awareness of nursing and future career.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5(1), 22-31.
- Bath, D., Smith, C., Stein, S., & Swann, R. (2004). Beyond mapping and embedding graduate attributes: bringing together quality assurance and action learning to create a validated and living curriculum. *Higher Education Research and Development*, 23, 313-328.
- Candy, P. C. (2000). *Learning and earning: graduate skills for an uncertain future*.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Lifelong Learning Conference. Yeppoon, Australia.
- Cha, S. M. (2005). *Differences in basic occupation abilities and career search abilities according to college students' work experiences and satisfac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 Chartier, L. (2001). Use of meta cognition in developing diagnostic reasoning skills of novice nurses. *Nursing Diagnosis*, 12(2), 55-60.
- Cho, H., & Lee, G. Y. (2006). Self esteem and career identif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ublic Health Nursing*, 20(2), 163-179.
-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 Hillsdale,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DeBourgh, G. A. (2003). Predictors of student satisfaction in distance-delivered graduate nursing courses: what matters most? *Journal of Professional Nursing*, 19(3), 149-163.
- Herr, E., & Niles, S. (1997). Perspectives on career assessment of work-bound youth.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5(2), 137-150.
- Holland, J. L. (1985). *Manual for the vocational preference inventory*.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Holland, J. L., Diger, D. C., & Power, P. G. (1980). *My vocational situation*. Palo Alto, CA: Counseling Psychology Press.
- Jung, K. S., & Jang, Y. S. (2008). Plans improving the employ ability of university students by developing basic job skills-duksung women's university. *Social Science Studies*, 15(1), 109-139.
- Jyung, C. Y., Na, S. I., Kim, J. W., Jung, S. J., & Heo, Y. J. (2002). The education strategy for key competencies development in colleges-In case of woosung. *Korean Higher Vocational Educational Research*, 3(4), 825-852.
- Kang, K. J., & Lee, K. N. (2003).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general education curriculum for cultivating junior college students' key competencies.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al Research*, 22(1), 79-113.
- Korean Collegiate Essential Skills Assessment (2015, May 10). Korean collegiate essential skills assessment. Retrieved from <http://www.kcesa.re.kr/intro.do>.
- Kim, B. H. (1997).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the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Kim, M. A., Im, J. Y., Kim, S. Y., Kim, E. J., Lee, J. E., & Ko, Y. K. (2004). Influencing factors on nursing students' career attitude maturity. *Journal of Korean Academy Psychologic Mental Health Nursing*, 13(4), 383-391.
- Kim, S. T. (2009). A Study on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for key competencies of university students. *Korea Public Administration Journal*, 21(2), 599-696.
- Lee, K. H., Kim, E. K., & Lew, K. H. (2013). The relationships of creativity, problem solving ability and motivation in college students. *Korean Society for Creativity Education*, 3(1), 125-139.
- Lee, K. Y., & Kim, S. Y. (2010). *Vocational college basic skills analysis and improvement of education*. Korea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 Lee, Y. S., Park, S. H., & Kim, J. K. (2014). Nursing students' self-leadership, self-efficacy, interpersonal relation, college life satisfaction.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4(6), 229-240.
- Lim, E. M. (2011). Exploring korean college students' career decision process and mediating factor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2(2), 447-466.
- Moon, I. O., & Lee, G. W. (2010). The effect of satisfaction in major and career search efficacy on career search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6(1), 83-91.
- Park, J. H. (2010). Effectiveness of cooperative learning on

- nursing students' performance and experienc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6(2), 202-212.
- Park, S. M. (2001). *Structural and adaptive analysis of the departmental adjustment in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Busan University, Busan.
- Park, S. Y., Bae, J. H., Eom, A. Y., Cha, Y. N., Kim, K. K., & Sim, J. H. (2010). Development of university students' key competency improvement program based on field demanding analysis in nursing and social welfar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6(2), 272-282.
- Spokane, A., & Holland, J. (1995). The self-directed search: A family of self-guided career intervention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3, 373-390.
- Statistic Korea (2015, April 10).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in may 2015. retrieved from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3/1/index.board](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3/1/index.board).
- Terzioglu, F. (2006). The perceived problem-solving ability of nurse managers. *Journal of Nursing Management*, 14(5), 340-347.
- Wright, K. (2007). Unsupervised medication administration by nursing students. *Nursing Standard*, 19, 49-54.
- Yang, N. Y., & Moon, S. Y. (2011). Relationship of self-leadership, stress and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7(21), 216-225.
- Yang, S. A. (2010).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problem solving abil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ing Administration*, 16(4), 389-398.

# The Effects of Core Competencies on Adaptation of the Major, Career Identity and Career Search Ability in Nursing Students\*

Yun, Young-Mi<sup>1)</sup> · Sung, Kyung-Suk<sup>2)</sup> · Kim, Eun-Joo<sup>3)</sup>

1)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eoil University

2)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3) Associated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angji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was designed to explore the effects of core competencies on adaptation of the major, career identity and career search ability in nursing students. **Methods:** A correlational research design was used with the convenient sample of 360 nursing students. After explain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to the participants, those who signed the consent form were provided with a self-descriptive questionnaire. **Results:** The highest average score of leadership of core competencies was 5.5 on 7 point-scale. The lowest average score of problem-solving ability was 4.4.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adaptation of the major, career identity, and career search ability and core competencies, with the exceptions of nursing students. Adaptation of the major could be explained 25% by the instrument application ability, leadership, organizational structure, teamwork and career development. Career identity could be explained 13% by leadership, responsibility, teamwork, and career development. Career search ability could be explained 12% by responsibility, conflict management, teamwork, communication ability and career development. **Conclusion:** Based on the results, core competencie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adaptation of the major, career identity and career search ability in nursing students. Thu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 educational curriculum to improve core competencies, career identify and career search ability.

**Key words :** Core competency, Adaptation of the major, Career Search, Nursing student

\* This work was supported by 2013 Seoil University research grant.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Kim, Eun Joo

Department of Nursing, Sangji University

220-702, Sangjidae-gil 83, Wonju-city, Gangwon-do Republic of Korea

Tel: 82-33-738-7624 Fax: 82-33-738-7620 E-mail: kimeju0409@sangji.ac.kr